

시연施連칼럼

무욕의 아름다움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원공파회장

국내에서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는 국보급 문화재였다.

송松, 죽竹, 매화梅花 그림이 38cm 높이의 백자에 적당한 여백(餘白)을 두고 감싸는 '청화백자송죽매화靑畫白磁松竹梅 瓊아리'를 연전 어느 전시회에서 감상한 적이 있다.

흙이라곤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는 조선(朝鮮) 초기 시대(15세기-16세기)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만들어진 궁중(宮中) 자기(磁器)여서 고미술상(古美術商)들도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할 만큼 최상급 문화재(文化財)였다.

이런 고귀한 미술품(美術品)을 바라보면 비록 '청화백자 송죽매 인물靑畫白磁 松竹梅 人物' 그림들이 실제보다 아주 작게 그려졌지만 시(詩)를 읊는 소리가 들리고 솔바람 매화(梅花)향이 느껴지는 떨림 현상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온다. 이런 현상들은 유명 예술(藝術) 작품을 감상할 때 흔하게 느끼는 극적인 정서 변화를 말한다.

특히 이 시대에 만들어진 조선(朝鮮)백자의 경우는 언제나 한 발 물러나 있는 어머니 같다고 할 만큼 기품이 넘치고 겸손한 모습까지 갖추었다.

18세기 조선(朝鮮)에서 탄생한 달항아리는 꼭 찬 만월(滿月)처럼 허리가 불룩한 백자가 주축을 이룬다. 손도 높은 코발트 푸른빛이 감돌고 있는 것도 더러 있다.

보통 높이가 40cm여서 위와 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이는 힘든 작업을 거쳐야하며 1300도가 넘는 가마의 고열을 이겨내고 탄생하는 완성품 항아리는 10개를 넣어도 한두 개가 나올까 말까 한다. 절반은 내가 만들고 절반은 하늘이 만드는 것이라고 경주(慶州) 출신 도예가 박영숙(朴英淑) 선생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인간의 취미 생활 가운데 도자기(陶磁器)나 고미술품(古美術品)을 만지는 손은 가장 고급스럽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이성을 갖고 하는 취미생활(趣味生活)에서는 마지막으로 치고 그다음이 마약을 듣기도 한다. 그만큼 취미가 호사스럽고 재력이 있어야 하지만 역

사와 가마의 성격, 색감, 조형미 등 모든 부분을 꿰뚫는 심미안(審美眼)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고고(考古) 미술사를 꿰뚫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냥 손쉬운 말로 도자기(陶磁器)로 말하고 있으나 인간이 만들어 낸 그릇 중에는 아직까지 도자기를 앞지르는 생활 용기는 없다. 나무, 금속, 유리에다 플라스틱까지 등 했지만 도자기와 같이 청결(淸潔)하고 품위(品位)가 넘치는 그릇은 아직 없다.

우리 현대미술(現代美術)에 의해 지금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는 것은 '무욕의 아름다움'을 성취한 조선(朝鮮) 도공(陶工)의 비결(秘訣)은 도공(陶工)이 예술인(藝術人)들보다 먼저 깨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미술의 선구자(先驅者)였던 최순우(崔淳雨)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 "한국의 폭넓은 흰 빛 세계와 형언하기 힘든 부정형(不定形) 원이 그려주는 무심한 아름다움을 모르고서는 한국미의 본바탕을 체득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한국의 백자(白磁)는 오늘처럼 절제된 공간에서 더 빛을 발한다.

우리나라 고고학(考古學)을 이끈 삼불(三佛) 김원룡(金元龍, 서울대학교수) 선생 역시 중국(中國) 도자(陶磁)가 장대하고 잘 차려입은 경극(京劇)의 배우 같다면 일본(日本) 도자는 화려하게 꾸민 기생(妓生) 같고 한국(韓國) 도자는 수수하게 차려입은 가정주부와 같다고 비교했다.

그래서 한국 도자(陶磁)의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은 항상 끌어안고 만지고 싶다. 도자(陶磁)에서 보는 여백(餘白)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보고 비우는 데서 채워져 있음을 보는 것이다. 그 여백(餘白)의 의미가 우리 예술(藝術)에 있는 고고한 아름다움이다.

실증적(實證的) 사고에 파묻힌 서양인(西洋人)들은 근접조차 하기 어려운 미적 접근이 여백(餘白)의 가치다. 중국(中國)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도자기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2000년, 유약을 입혀 1300도 열이 넘으면 자기(磁器)라고 부르고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워 내면 도기(陶器)여서 자기는 도자기(陶磁器)중의 꽃이라 불릴만하다.

17세기 초까지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조선(朝鮮)과 중국(中國)만 갖고 있었다. 조선(朝鮮)에서 백자(白磁)를 빚었던 이삼평(李參平)은 일본(日本)으로 건너가 아리타(有田)에서 백자의 원료가 되는 점토(粘土)를 발견, 왜(倭)에서 처음으로 백자를 만들어 그 유명한 "아리타야기"의 도조(陶祖)가 되었다.

이로써 일본(日本)에 접해진 조선(朝鮮) 도공(陶工)들은 영주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도자기를 만드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도자 산업의 발전은 일본(日本)을 유럽 등 전 세계에 일본문화를 알리는 해상무역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왜에 끌려간 납한 조선(朝鮮) 도공(陶工)들의 망향(望鄕)의 원인이 됐으며 일본 국보 다완의 중시조들이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35>



권현편집위원장

<정암집>은 권경하(權經夏, 1828-1905) 공의 시문집(詩文集)이다.

공의 자는 제형(濟亨), 호는 정암(正菴) 또는 저수(渚叟)·적암노인(菴菴老人)이다. 출생지는 예천(醴泉) 용문면(龍門面) 저곡(渚谷)이다. 안동권씨 31세(世)로 북아공파(僕射公派)이다. 부친은 권종모(權宗模, 1791-1840)이다.

공은 정재(正齋) 류치명(柳致明, 1777-1861)의 문인이다. 많은 후학을 기르고, <경의류편(經義類編)>·<언인편(言仁編)>·<언경록(言敬錄)> 등을 만들었다. 문집으로 <정암집(正庵集)> 5권이 있다. 서파(西坡) 류필영(柳必永, 1841-1924)이 행장을 짓고 교리(校理) 이만계(李晩燾, 1845-1920)가 지문(誌文)을 지었다.

<정암집>은 글이 모두 546편(篇)인데 그 가운데 시(詩)가 191편으로 가장 많고 이 191편의 시 가운데 47편이 만사(萬詞)이다. 다음으로 소(疏)가 4편이고 서(書)가 97편이며 잡저(雜著)가 5편이다. 그리고 서(序) 9, 기(記) 5, 발(跋) 2, 설(說) 1, 잡(雜) 1, 명(銘) 1, 심량문(上樑文) 3, 뇌사(詠辭) 4, 축문(祝文) 7, 제문(祭文) 1, 행록(行錄) 2, 광기(曠記) 1, 유사(遺事) 5편이다.

부록(附錄)은 모두 167편으로 장지문(狀誌文) 5, 만사 91, 제문 67, 정사(精舍)상량문 3편이다. 문집의 끝에는 유집(遺集)을 간행할 때 현손 권재진(權在振)이 지은 발문이 실려 있다.

발문에 의하면 공이 돌아가신 지 100년 가까이 되어서야 문집을 간행한다고 하며, 잡저(雜著) 가운데의 <언인편>·<언경록>·<경의류편>은 뒷날 속간(續刊)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공이 지은 <능동재사중건기(陵洞齋舍重建記)>를 국역한 것이다.

만물 이치의 흥폐(興廢)는 항상 운수의 변화에 달려있다. 폐(廢)해지는 것은 본디 운수가 막혀 그런 것이지만 진실로 사람 일을 닦으면 또한 폐한 것을 일으켜 흥(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군자는 사람 일을

정암집(正菴集)

뉘는데 힘쓰고, 전적으로 운수를 꾀지 삼지 않는다.

우리 시조 태사공 부군(府君)의 묘소가 천등산(天燈山)에 있다. 처음에 묘소를 잃어버려 자손들이 몹시 가슴아파한 지가 오래 되었다. 후손 평창공(平昌公) 용(雍)이 정성을 다해 묘소를 찾고 지석(誌石)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묘사(墓祀)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 뒤 훌륭한 후손들이 이어 관찰사나 수령으로 부임해 와서 대대로 증수(增修)하여 비로소 당(堂)과 실(室), 동서(東西) 양쪽 곁채, 그리고 곁간을 지었다. 뒤에 또 누각(樓閣)과 부역을 창건하니 이에 묘지기는 그 처가 있게 되고 재속하는 자는 그 장소가 있게 되었으며, 용기(用器)와 물품은 그 보관할 곳이 있게 되었으며, 많은 종인(宗人)이 모여도 날찌하여 모두 앓을 수 있게 되었다.

지지난 계유년[1753]에 화염에 휩싸였는데 곧바로 다시 세울 것을 의논하니 규모와 칸 수가 더욱 늘어났다. 지난 병신년[1896]에 또 화재가 일어나 앞서 시대 분들이 거듭해서 이루어놓은 공이 모두 잿더미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근래에 우리 종족(宗族)이 침체되어 옛적의 흥성하던 때와 같지 못하고, 게다가 어쩌다 재앙까지 만났으니, 장차 기회와 운수가 서로 맞지 않고 종지 않아지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는 경계를 느슨히 해서 초래된 것인가?

해를 거듭하면서 전하고 이어받아 우리 후인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처럼 참혹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수리하여 예전대로 회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 무심하여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원근의 여러 종인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여 정유년[1897]에 일을 시작하여 3년째가 되는 기해년[1899]에 일을 마쳤다. 건물의 제도가 한결같이 앞서 이루었던 것처럼 정교(精巧)하니 거의 더 나은 것 같았다. 이제 사(齋舍)는 지난날에 음복(飲福)하고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던 곳이다. 산하(山下)의 여러 종족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했으니 그들이 선조를 위해 성의를 다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쓴 것이 앞서사람의 공을 계승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만하다.

아! 처음에 묘소를 실전(失傳)한 것과 이번에 제사가 불에 탄 것이 비록 운수가 그렇게 되게 한 것임을 면치 못했다 하더라도 묘

소를 찾아내고 제사를 수리하여 완전하게 한 것은 실로 자손의 성력(誠力)이 이룬 것이니 앞서 말한 폐한 것을 일으켜 흥하게 하는 것이 오로지 사람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또 일찍이 듣건대 옛적에는 산야(山野)에 장사지내고 나서 사당에서 제사지내고 묘소에서는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처음에 우리 시조를 장사지낼 때 묘소 앞에는 표석(表石)을 세우지 않았던 데다가 세대 또한 오래 지나 묘소를 정확하게 알 길이 없게 되었던 것이, 혹은 묘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데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하니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비록 옛 제도는 아니라 사람의 정서로 보건대 예로서 마땅히 가깝고 두터이 해야 할 것이므로 영원히 전하고 보호하고 지킴에 실수가 없이 하려면 붓기를 제사 제물을 장만할 장소가 없을 수 없고, 원근에 사는 종인이 모두 한데 모일 장소가 없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제사를 세운 이유인 것이다.

지금부터 성묘하는 자손은 백두산(白頭山)에서 시작한 천등산을 우러러보고 산처럼 높이는 훈덕(勳德)을 생각하고,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낙동강에 임하여 마치 바다와 같이 호탕(浩蕩)한 공렬(功烈)을 보듯이 해야 할 것이다. 백두산이 이지러지지 않고 동해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우리 시조의 유풍(遺風)과 두터운 은택이 백두산과 동해바다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 대대로 이어나가는 도리는 오로지 집터를 닦고 건물을 짓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집터를 닦고 건물을 짓는 큰일은 다만 재실을 잘 짓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조를 받들며 정성스럽고 공경스런 마음을 다하고, 종족(宗族)을 대함에 친밀하게 하는 도리에 힘쓰며, 서리와 이슬에 젖는 묘소에서 영혼이 오르내림을 실제로 입신(立身) 것같이 하고, 음복(飲福)하는 자리에서는 노소(老少)가 모두 있게 하면 비록 세대가 멀더라도 곧 한집안에 사는 친족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어찌 문계문계 일어나지 않겠는가? 무릇 우리 여러 종인은 각기 우리의 선조를 생각하고 각기 조상을 육보(育保)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기를 자자손손이 폐하지 말고 이어 나가면 집터를 닦고 건물을 짓는 도리를 거의 잘 하는 것이 될 것이다.

1904년 2월 상순에 30세손 경하(經夏) 삼가 쓰다.

추밀공파 정헌공계 오현공종중 정기총회 개최



권용학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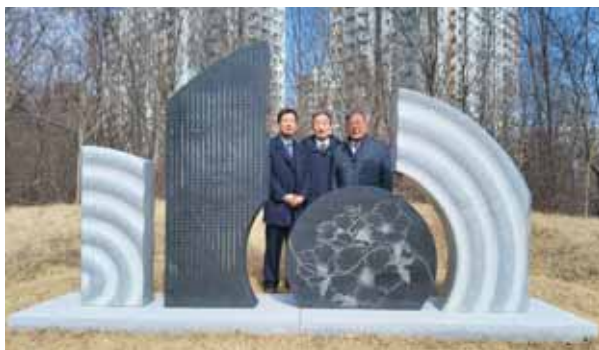
정기총회 장면

추밀공파 정헌공계 오현공종중(회장 권용학) 제51차 정기총회가 3월 2일 11시 시흥 능곡동 종중회관에서 권오상 대종회 사무총장과 권석원 정헌공종중 사무처장, 권행안 편집국장을 비롯하여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길행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용학 회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권용학 회장은 인사말에서 "춘삼월이 돌아왔다. 이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권오상 사무총장님과 권석원 사무처장님 그리고 안동권씨 종보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행안 편집국장님께서 오현공종중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현공종중 종친 여러분께서도 강원도와 서울, 부천, 인천, 광명, 수원 등 각 지역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현공종중 선조 중에는 권희(權禧, 33세, 1900-1955) 독립지사 계신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권희 독립지사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흥능곡역 근처 공원에 기념비를 건립했다. 시장을 비롯하여 시흥시 주요 인사들과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다. 서당 생도였던 독립지사께서는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오는 7일 군자면 옛 시장

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각 리민(里民)은 구한국 국기 1개씩을 가지고 와서 모이라는 비밀통고(秘密通告)를 직접 작성하여 돌려 보게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권희 독립지사는 체포되고 만다.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며 갖은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출소 후에도 고문의 후유증과 감시로 고초를 겪었고 사람다운 생애를 살지 못했다. 손자 손녀에게 권희 독립지사의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산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희 독립지사는 권용학 회장의 큰아버지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한 바 있다.

이어서 권오상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제51차 오현공종중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걸 보니 오현공종중의 평소 단합된 저력이 보이는 것 같다. 권희 독립지사를 배출한 가문답게 명망있는 집안의 정기총회에 와서 인사말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대종회에서는 새로 취임하신 권영창 회장께서 안동권문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께서도 많



권희 독립지사 기념비. 왼쪽 검은색 비석에 지사의 얼굴이 음영되어 있다.

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오현공종중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석원 정헌공종중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정헌공종중 문사를 본 지 17년 됐다. 병길 족친과는 인연이 30년이 되었다. 정헌공 추향제는 10월 두 번째 일요일이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현공종중에서는 500년 전에 오현공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점이 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孝親) 둘째는 임금에게 충성하고(忠君) 셋째는 일가친척끼리 화목하고(睦族) 넷째는 믿음으로 벗을 사귀고(信友) 다섯째는 사리사욕을 멀리할 것이며(遠利欲) 여섯째는 어질고 의로운 일에 가까이 하라(近仁義) 책자에 그 내용이 있다. 오현공의 가르침을 세기만 문중이 더욱 단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용학 회장은 권오상 사무총장에게 대종회 발전을 위한 찬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석원 사무처장, 권행안 편집국장은 권병길 족친의 안내에 따라 인근 공원에 위치한 권희 독립지사의 기념비를 참배하였다. 권행안 편집국장

금남사 양촌 권근 선생 석채의(釋菜儀) 봉행



금남사(錦南祠)에서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선생의 석채의(釋菜儀)가 3월 24일 10시 30분 권오현 추밀공파 문충공 종중 회장을 비롯하여 권기준 문경공 종손, 권영관, 권혁중, 권순각, 권영무 문경공 후손, 권기훈 문경공 후손, 권행안 편집국장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금남사는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의 영정을 모시고 있고 양촌 권근 선생과 수은(樹隱) 김충한(金沖漢) 선생의 위패를 배향하고 있다.



금남사 바로 위에 자리한 경천묘(敬天廟)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어진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음력 2월 15일 경천묘 대제와 금남사 석채의를 함께 봉행하고 있다. 신라기원(新羅紀元) 2081년 경천묘 대제는 초헌관 이현관 종헌관으로 분방하여 현직하고, 금남사는 양촌 선생과 목은 선생 및 수은 선생 후손 한 사람이 헌자(獻者)가 되어 헌직하는데, 권오현 문충공 회장이 헌직했다. 금남사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에 위치한다. 권행안 편집국장